

핸드볼 시즌 돌아왔다...광주도시공사 "올해도 PO 가자"

핸드볼코리아리그 오늘 개막, 인천시청과 첫 경기...13일에는 홈경기 강경민·원선필 견재하고 대어급 신인 송혜수·박세림 가세 전력 상승 탄탄한 팀워크 바탕 도약 노려...여자부 팀별 선수 이동 많아 변수로

광주도시공사 여자핸드볼팀이 '플레이오프 진출' 꿈을 향해 첫 걸음을 내딛는다.

5일 광주시체육회에 따르면 광주도시공사는 6일 서울 SK핸드볼경기장에서 인천시청과 시즌 첫 경기를 치른다. 4년 여 만에 광주 팬들과 만나는 홈 경기는 오는 13일 오후 7시 빛고을체육관에서 열린다. 상대는 부산시청이다.

오세일 감독이 이끌고 있는 광주도시공사의 '2021-2022 SK핸드볼코리아리그' 목표는 포스트 시즌 진출이다. 지난 시즌 정규리그 4위, 포스트시즌 3위라는 창단 이래 최고의 성적을 거둔 자신감이 바탕이다.

틀을 잡아가는 팀워크에 대어급 신인을 수혈한 것도 광주도시공사의 강점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신인드래프트 1순위 송혜수에 이어 박세림을 영입했고 골키퍼 박조은이 복귀해 전력 상승이 기대된다. 지난해 도쿄올림픽 국가대표로 출전한 강경민과 원선필을 축으로 국제대회 경험이 풍부한 김지현과 정현희까지 가세했다.

광주도시공사 핸드볼팀은 리그를 앞두고 청주, 익산, 진주 등을 순회하며 전지훈련을 진행했다. 체

력훈련과 실전 적응경기 등을 통해 경기력을 높이고 선수들의 자신감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해 왔다. 지난해 리그 5위를 차지한 인천과 평가전도 합격점을 받았다.

이번 시즌 핸드볼 코리아리그 여자부는 선수 이동이 많아 전력 판도를 짐작하기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 시즌 우승팀 부산시청공단은 권한나가 SK로 이적하고 류은희와 이미경이 각각 형가리와 일본 리그로 떠나 전력 누수가 크다. 반면 삼척시청은 골키퍼 박세영을 영입했고, 인천시청은 김은아와 김선화 '국가대표 자매'를 동시에 기용하게 됐다.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팀은 지난 시즌 우승팀 부산시청공단이다.

강재원 감독이 이끄는 부산시청공단은 주전 선수들의 이적 및 부상 공백 등을 메우기 위해 외국인 선수 2명을 기용한다.

강은혜가 부상 중인 파브 자리에 벨라루스 출신 발레리아 후타바를 데려왔고, 주희와 오사라가 모두 팀을 떠난 골문은 리마 가비나 플라비아(브라질)가 지킨다.



광주도시공사 여자핸드볼팀이 5일 서울 SK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리는 인천시청과 경기를 앞두고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광주시체육회 제공>

2020-2021시즌에는 여자부 SK의 아마노 유미코(일본)와 부산시청공단의 코스타 실비아(브라질) 등 외국인 선수들이 출전한 바 있다. 이번 시즌 부산시청공단의 발레리아와 플라비아는 모두 팀내

비중이 높을 것으로 예상돼 팬들의 기대가 크다. 2013년부터 지난 시즌까지 벨라루스 민스크에서 열린 발레리아는 벨라루스 주니어와 성인 국가대표 출신으로 유럽 챔피언스리그 경력도 있는 선수다.

골문을 지킬 플라비아는 2017년부터 유럽의 명문 리그로 뛰는 형가리 리그에서 활약했고 팬아메리칸 게임 등에 국가대표로 뛰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연합뉴스



당구 여제 김가영이 지난 4일 경기 고양시 빛마루방송센터에서 열린 NH농협카드 PBA-LPBA 챔피언십 결승에서 강지은을 4-1로 제치고 우승했다. 사진은 경기 중인 김가영 모습. /연합뉴스

당구 김가영 준우승 악연 끊고 2년만에 우승

당구 여제 김가영(39·신한금융투자)이 2년 만에 여자프로당구(LPBA) 투어 정상에 올랐다.

김가영은 4일 경기 고양시 빛마루방송센터에서 열린 NH농협카드 PBA-LPBA 챔피언십 결승에서 강지은(30·크라운해태)을 4-1(11-6 11-6 10-11 11-1 11-6)로 제치고 우승했다.

LPBA 투어 첫 시즌인 2019년 12월 SK렌터카 챔피언십(6차 대회)에서 정상에 오른 지 무려 25개월 만에 일구낸 두 번째 우승이다.

김가영은 첫 우승 이후 3차례나 결승에 진출했지만, 매번 정상 문턱에서 미끄러졌다.

준우승 악연에 시달렸던 김가영은 4번째 도전 만에 기어코 정상에 우뚝 섰다. 김가영은 우승상금 2천만원과 시즌 랭킹포인트 2만포인트를 받았다.

준우승 강지은은 상금 600만원과 1만포인트를 추가했다.

또 64강전에서 에버리지 1,900을 기록한 이미래(TS삼푸)는 한 경기에서 가장 높은 에버리지를 기록한 선수에게 주어지는 '엘렉트릭축은행 웰빙랭킹'을 수상, 상금 200만원을 받았다.

첫 세트부터 김가영의 기세가 매서웠다.

2-4로 끌려가던 김가영은 8이닝에서 5득점을 쌓아 올리며 7-4로 단숨에 역전한 뒤 9이닝 1득점, 12이닝과 13이닝에서도 점수를 추가해 11-6으로 첫 세트를 따내며 기세를 제압했다. 2세트는 17이닝 장기전 끝에 김가영이 11-6으로 따냈다.

3세트는 팽팽한 접전 끝에 강지은이 한 세트를 만회했다.

김가영의 집중력이 4세트에서 다시 빛났다. 김가영은 1이닝 1득점을 시작으로 6이닝 동안 단 한 차례의 공타도 없이 득점하며 11-1로 승리했다.

벼랑 끝에 몰린 강지은은 5세트에서 5-2로 앞서 갔으나 김가영이 3세트 1득점을 시작으로 4이닝 4득점, 5이닝 4득점으로 11-6으로 경기를 마무리했다.

김가영은 "3년 동안 했던 모든 노력과 고생을 보상받는 느낌이다. 너무 행복하다"며 "경기에서 수구를 바꿔치는 실수도 있었지만, 경기에 너무 과몰입하다 보니 실수를 했던 것 같다. 그래도 스스로 무너지지 않고 남은 세트를 집중력을 갖고 마무리할 수 있어서 다행스럽다. 점수로 준다면 70점 정도를 주고 싶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호랑이띠 임성재 "세계 20위·시즌 최종전 진출 목표"

'챔피언의 대회' TOC 내일 개막 김시우·이경훈도 출전 우승 사냥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뛰는 임성재, 김시우, 이경훈이 하와이에서 2022년 첫 대회에 나선다.

오는 7일(한국시간)부터 다음 달 미국 하와이 카팔루아 리조트 플랜테이션 골프 코스(파73)에서 개최되는 센트리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TOC)는 올해 처음 열리는 PGA투어 대회다.

PGA투어는 지난해 9월 2021-2022 시즌을 시작했지만, 센트리 TOC가 사실상 개막전이나 다름없다.

최정상급 특급 선수들은 9월부터 12월까지 이른바 '가을 시리즈'는 몇 차례 출전에 그치고 이 대회부터 본격적으로 우승 사냥에 나서기 때문이다.

센트리 TOC는 작년 투어 대회 우승자만 나설 수 있다. 출전 선수가 39명에 불과한 이유다.

출전 선수 면면은 화려하다.

세계랭킹 1위 온 램(스페인)과 2위 폴린 모리카와(미국), 작년 페덱스컵 우승자 패트릭 캔틀리(미국), 도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잔더 쇼펠레

(미국), 장타왕 브라이슨 디샬보(미국)와 부활한 브룩스 쟁카(미국), 그리고 저스틴 토머스, 조던 스피스(미국)도 출전한다.

작년 4대 메이저대회 우승자 히데키 마쓰야마(일본), 필 미켈슨(미국), 램, 모리카와가 모두 한 자리에 모이는 것도 눈길을 끈다.

미켈슨은 21년 만에 이 대회 출전이다.

임성재는 5일 한국 기자들과 진행한 온라인 화상 인터뷰를 통해 "제가 현재 세계 랭킹 26위인데 조금씩 올려서 20위 안에 유지하면 좋겠고, 제가 퍼트가 약하기 때문에 3~4m 정도 퍼트 연습을 많이 해야 할 것"이라고 새해 각오를 전했다.

1998년생 호랑이띠인 임성재는 지난해 2월 16위가 자신의 역대 최고 순위다.

그는 "작년에도 좋은 성적(공동 5위)을 냈는데 올해도 그러면 좋겠다"며 "그래도 올해 첫 대회라 무리하지 않고, 컨디션을 보면서 열심히 한 번 쳐 보겠다"고 다짐했다.

"시즌 초반 좋아하는 대회가 많아 경기에 계속 출전할 것 같다"는 임성재는 "올해 메이저 대회에서도 잘해서 세계 랭킹을 조금씩 올리고, 마지막 목표는 시즌 최종전인 투어 챔피언십 진출"이라고 호랑이띠의 해인 2022년 선전을 다짐했다. /연합뉴스



센트리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 개막을 앞두고 연습라운딩을 하고 있는 임성재. /연합뉴스

'코로나 회복' 시프린, 알파인 월드컵 준우승

2022 베이징올림픽 알파인 스키에서 강력한 금메달 후보로 지목되는 미케일라 시프린(미국)이 코로나19 확진 후 처음 출전한 대회에서 준우승했다.

시프린은 4일(현지시간) 크로아티아 자그레브에서 열린 2021-2022 국제스키연맹(FIS) 알파인 월드컵 여자 회전 경기에서 1, 2차 시기 합계 1분 57초 49로 2위에 올랐다.

우승은 1분 56초 99를 기록한 페트라 블로바(슬로바키아)가 차지했다. 시프린과 격차는 0.5

초 차이다.

시프린은 지난해 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연말 오스트리아 린츠에서 열린 월드컵에 출전하지 못했다.

약 8일만에 완쾌 돌아온 시프린은 경기 후 "격려도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 괜찮은 결과"라며 "예상보다 빨리 돌아올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회전 종목에서 시프린의 강력한 라이벌인 블로바의 우승은 베이징올림픽 우승 향방을 더

욱 점치기 어렵게 만들었다.

블로바는 2021-2022시즌 열린 다섯 차례 회전 경기 가운데 네 번 우승했다. 남은 한 번은 시프린이 정상에 올랐다.

최근 40차례 월드컵 회전 경기에서 시프린 또는 블로바가 우승한 대회가 37번이나 될 정도로 이 종목에서는 둘의 경쟁이 치열하다.

이들은 장소를 슬로베니아로 옮겨 이번 주말 대회전, 회전 경기에서 재대결한다.

이번 시즌 회전 종목에서는 블로바가 랭킹 포인트 480점으로 1위, 시프린 340점으로 2위지만 전 종목 합산 순위에서는 시프린이 830점으로 1위, 블로바는 715점으로 2위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총장로관

즐거움 문화산책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
2관	경관의 피,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
3관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
4관	쌍2게더, 킹스맨: 퍼스트 에이전트
5관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 쌍2게더, 해피 뉴 이어
6관	경관의 피
9관	경관의 피, 해피 뉴 이어
7관 씨네케틀	경관의 피, 쌍2게더
8관 씨네케틀	킹스맨: 퍼스트 에이전트, 신데렐라 2: 마법에 걸린 왕자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광주국악상설공연
일시 : 2022.01.04.(화)~ 29.(토)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2, 8379

광주시립교향악단 제360회 정기연주회
2022 신년음악회 Waltz & Rhapsody
일시 : 2022. 01. 14.(금)
장소 : 전남대학교 민주마루
문의 : 062-524-5086